

“문체부의 고교생 카툰 엄중 조치는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

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문체부의 고교생 카툰 ‘윤석열차’ 수상 경위 조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
문체부, 25년간 진행된 부천국제만화축제 후원 취소 가능성까지 거론
국가인권위에 인권침해 신속 조사, 피해자 구제조치, 책임자 징계 권고 등 요청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고등학생 카툰 ‘윤석열차’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엄중 경고 및 조사 행위가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진정서를 6일 오전 9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4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고등학생의 카툰 ‘윤석열차’를 수상작으로 뽑아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경고했으며, 해당 공모전의 심사기준과 선정 과정을 조사하며 후원 승인 취소까지 예고한 바 있습니다. 수상부문인 카툰의 사전적 정의 자체가 ‘주로 정치 풍자하는 한 컷짜리 만화’임에도, 카툰 부문 수상작인 ‘윤석열차’ 작품이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이라는 이유로 엄중 경고한 것은 문체부가 카툰의 개념 자체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련의 조치는 수상자인 고등학생의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심사위원회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헌법상 표현의 자유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위원들은 자신의 양심과 예술적인 판단에 따라 심사하여 수상작품을 선정하였는데, 정치적인 풍자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는 이유로 문체부가 만화축제를 주최한 단체에 엄중 경고하면서 선정 기준과 과정을 조사하는 것은 심사위원들의 표현의 자유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중 경고 등 문화체육관광부가 만화영상진흥원에 취한 일련의 조치는 만화영상진흥원의 표현의 자유도 침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근거도 없이 심사기준과 과정을 조사하고 25년간 진행되어온 부천국제만화축제의 후원까지 취소하려는 것은 만화영상진흥원의 예술 진흥 업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인 홍익표, 김윤덕, 유정주, 이개호, 이병훈, 이상헌, 임오경, 임종성, 전재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권침해 사실을 진정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속히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사실을 조사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하고 문화체육부장관 및 담당 실·국장 등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2022년 10월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익표, 김윤덕, 유정주, 이개호, 이병훈, 이상헌, 임오경, 임종성, 전재수